

꿀찌에 일격 당한 KIA, 다시 분위기 살릴까

30일~내달1일 두산·2~4일 한화전

지난주 3승 3패... 2위 LG와 6경기 차 '대체 외인' 알드레드 마지막 시험대 '최다 득점 도전' 김도영 활약상 주목

독주 체제 굳히기에 나섰으나 최하위 키움 히어로즈에 일격을 당한 KIA 타이거즈가 자존심 회복에 나선다. 현재 가을야구권에서 밀려나 있는 두산베어스와 한화이글스를 연달아 만나 다시 상승세를 타겠다는 각오다.

KIA는 지난주 NC다이노스와 주중 홈 3연전에서 2승 1패로 워닝 시리즈를 쟁겼다. 하지만 키움과 주말 원정 3연전에서 1승 2패로 루징 시리즈를 당하면서 자존심을 구겼다.

결정적으로 바로 밑에서 추격 중인 LG 트윈스와 격차를 벌리는데 실패했다. LG가 지난주 잦은 우천 취소로 세 경기밖에 치르지 않은 가운데 2승 1패를 거두면서 6.5경기 차에서 6경기 차로 오히려 추격을 허용한 상황이 됐다.

승패 마진이 '0'에 그친 아쉬움은 있었지만 공격 지표는 긍정적이었다. 팀 주간 OPS(출루율+장타율)가 0.826으로 1위에 올랐고, 홈런 역시 9개로 가장 많았다. 특히 지난주 사이클링 히트에 최연소·최소 경기 100득점까지 달성한 김도영이 주간 타율 0.440(25타수 11안타)으로 맹활



KIA 타이거즈 김도영(오른쪽)이 지난 26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히어로즈와 경기에서 3회초 1사 1루 상황에서 투런 홈런을 터트린 뒤 조재영 주루 코치와 세리모니를 하고 있다.

약을 펼쳤다.

●두산전, 단군 매치 우위를 지켜라

두산은 지난주 2승 4패로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다. 주중에는 키움을 상대로 2

승을 선점하며 워닝 시리즈를 확정 지은 뒤 마지막 맞대결에서 패배했고, 주말에는 SSG 랜더스에게 스윙을 당하며 최근 4연패에 빠졌다. 순위도 4위에서 6위로 내

2024 KBO 리그 순위 (29일 현재)

순위	구단	게임	승	패	무	승률	승차
1	KIA	100	60	38	2	0.612	-
2	LG	98	53	43	2	0.552	6
3	삼성	100	51	47	2	0.520	9
4	KT	99	49	48	2	0.505	10.5
	SSG	98	49	48	1	0.505	10.5
6	두산	103	51	50	2	0.505	10.5
7	NC	97	47	48	2	0.495	11.5
8	롯데	96	41	52	3	0.441	16.5
9	한화	96	41	53	2	0.436	17
10	키움	97	41	56	0	0.423	18.5

려왔고, KIA와 격차도 9.5경기에서 10.5경기로 벌어졌다.

KIA는 올 시즌 두산과 팽팽한 흐름이다. 열두 차례 맞대결에서 6승 1무 5패로 근소한 우위를 점하면서 '단군 매치'로 불리는 라이벌 경기답게 치열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KIA는 캡 알드레드와 김도현, 제임스 네일이 선발로 나선다. 이번 주 우천 등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주 2회 등판을 소화하게 될 알드레드의 역할이 중요하다. 윌 크로우의 대체 외국인 선수로 합류한 알드레드는 다음 달 15일까지 정식 선수 신분으로 전환돼야 포스트시즌 출전이 가능하다. 이번 주가 사실상 마지막 시험대다.

두산은 광빈과 시라카와 케이쇼, 조던 발라조빅으로 맞선다. 양 팀이 모두 외인 원투펀치를 출격시키는 로테이션이다. 다만 이들의 흐름이 최근 좋지 못하다. 시라카와는 7월 세 차례 선발 등판 모두 조기 강판되며 평균 자책점이 7.15에 이르고

있고, 발라조빅은 한국 무대 두 차례 등판에서 아직 승리를 신고하지 못했다.

●한화전, 선발 마운드를 흔들어야

한화는 지난주 전승을 거뒀다. 주중에는 삼성라이온즈를 상대로 2승을 선점하며 워닝 시리즈를 확보한 뒤 우천 취소로 한 경기를 쉬었고, 주말에는 LG를 상대로 우천 취소로 두 경기를 더 쉬고 승리를 거두며 3연승을 달렸다. 순위는 9위로 변동이 없었으나 KIA와 승차를 18.5경기에서 17경기로 줄이며 중위권 도약을 시도 중이다.

KIA는 올 시즌 한화를 상대로 강한 면모를 보였다. 열한 차례 맞대결에서 9승 2패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다. 특히 원정에서는 두 차례 3연전을 모두 스윙으로 완성하며 대전에서 유독 펄펄 나는 모습이다.

KIA는 황동화와 양현종, 알드레드가 선발 로테이션을 소화한다. 황동화는 한화를 상대로 세 차례 선발 등판에서 12.2이닝 11실점으로 좋지 못했다. 양현종은 한차례 선발 등판에서 6이닝 2실점으로 승리를 쟁겼고, 알드레드는 처음 한화를 상대한다.

한화는 김기중과 라이언 와이즈, 제이미 바리아가 선발 등판할 순서다. KIA는 한 주에만 외인 선발을 네 명 만나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KIA는 김기중에 2이닝 4실점(3자책점), 와이즈에게 6이닝 5실점(3자책점), 바리아에게 5.2이닝 4실점(3자책점)을 안기며 강한 모습을 보인 것이 긍정적인 요소다. **한규빈 기자**

“배드민턴의 연승행진, 이제 시작이다!”



파리 도착 5일차. 매우 무더운 날씨의 예상과는 다르게 비가 내려주면서 아침·저녁으로는 선선하고, 한국보다는 습도가 낮아 나름 쾌적한 날씨다.

현지 시간 28일, 오늘은 전남이 배출한 스타 안세영(나주 영산포 출신)과 전남 소속의 정나은 선수(화순군정)가 경기에 출전하는 배드민턴 경기를 응원하기 위해 포르트드라사펠 경기장을 찾았고, 경기 비중을 반영하듯 반가운 사람들과 함께 했다.

이번 올림픽 선수단장인 정강선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장, 그리고 담양 출신인 김중수 아시아배드민턴연맹 회장, 안세영 선수의 아버지인 안정현 전 나주시체육회 사무국장(복싱선수 출신) 등과 함께 우리 선수들을 힘차게 응원했다.

그 원력의 힘이 느껴졌는지 남자 복식에 출전한 강민혁-서승재 조가 홈팀의 일방적인 응원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선수들을 2-0으로 가볍게 물리쳤다.

이어 정나은 선수가 김원호 선수와 혼합복식 조별 2차전에서 프랑스 선수들을 역시 2-0으로 완파하며 첫 경기 인도네시아 선수들에게 패한 아쉬움을 달렸다.

그리고 이날 마지막 경기로 안세영 선

수가 여자 단식 1차전에서 불가리아의 날반토바를 2-0으로 완파하며, 오늘 3경기 모두 승리하는 기쁨을 맛봤다.

특히 안세영 선수는 지난 6월 인도네시아 오픈을 마지막으로 허벅지 부상 치료와 컨디션 조절에 전념하느라 오랜만에 대회에 출전함에도 불구하고 세계랭킹 1위다운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줬다.

이어진 강행군 스케줄. 배드민턴 경기 응원 후 선수촌을 방문했는데 우리나라에 대회 첫 금메달을 안겨준 펜싱 오상욱 선수를 만났다.

이번 대회 금메달을 획득하며 개인 통산 그랜드슬램(올림픽-아시아게임-세계선수권-아시아선수권)을 달성한 오상욱 선수에게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전남체육회장으로서, 이국땅 프랑스에서 고국의 중요성을 그 어느때보다도 다시한번 고귀하게 느껴보는 豪畧(호사)였음이라 ~.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체육은 중요한 기로에서 있다.

지난 1984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대회부터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대회까지 32년간 올림픽에서의 '10(금메달 10개 이상)-10(세계 10위 이내 진입)'을 유지했었던 한국체육.

부진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을 뒤엎고 펜싱과 사격에서 선수들이 깜짝 금빛 낭보를 전해주면서 산뜻한 출발을 알린 만큼 한국체육이 세계 경쟁력을 다시 한번 높여줄길 기대하면서, 더욱 힘껏 응원하겠다고 다짐한다. 체육 현장은 역시 뜨거워서 좋다.

전남 김행직·박정현, 태백산배 당구 남녀 동반 우승

전남 당구 대표 선수인 김행직(진도군청)과 박정현(전남당구연맹)이 2024 태백산배 전국3쿠션 당구대회에서 남녀일반부 동반 우승을 차지했다.

29일 전남당구연맹에 따르면 김행직은 지난 28일 강원도 태백 고원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남일부 결승에서 서창훈(시흥시체육회)을 50-29로 꺾고 우승컵을 안았다.

김행직은 결승에서 선공을 잡아 전반을 25-12로 크게 앞서며 승기를 잡았다. 후반전에도 기세를 몰아 18번째 이닝에서 하이런 8점을 얻고 21번째 이닝까지 41-23으로 크게 리드하며 승부에 췌기 박았고, 29번째 이닝에서 50-29로 경기를 마무리지며 에버리지 1.724로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다.

이로써 김행직은 지난 양구국토정중앙배에 이어 올해 2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김행직은 또 최호일(전남당구연맹)과



김행직

호흡을 맞춘 남자일반부 복식경기에 출전해 준우승을 차지했다.

박정현은 대회 여일부 결승전에서 이다연(대전당구연맹)을 25-17로 물리치고 태백산배 3연패 달성과 함께 올해 남원전국대회에 이어 2개 대회 연속 정상에 올랐다.



박정현

조호석 전남당구연맹 회장은 "전국대회에서 남녀 정상을 전남선수들이 차지해 매우 기쁘다"며 "어려운 훈련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전남당구를 빛내준 선수들에게 고맙다. 앞으로도 우리 선수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광주고 농구, 종별선수권 16강 진출

조별 예선 2승... 조 1위

광주고 남자농구가 제79회 전국남녀중별농구선수권대회 16강에 올랐다.

광주고는 27-29일 영광스포티움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대회 남고부 H조 예선 리그에서 2승을 기록, 조 1위로 결선 토너

먼트에 진출했다.

광주고는 지난 27일 예선 첫 경기에서 김해가야고를 98-73으로 꺾은 뒤 28일 여수화양고를 82-62로 물리쳤다.

예선 두 경기에서 3학년 쌍포인 이윤과 조주영(이상 가드 겸 포워드)의 활약이 뛰어났다. 이윤은 27일 26득점·28일 20

득점을, 조주영은 27일 24득점·28일 24득점을 생산하며 팀 공격을 책임졌다.

3학년 이승원(포워드 겸 센터)과 2학년 유병무(가드 겸 포워드), 1학년 김경륜(가드 겸 포워드)도 두 경기서 각각 두 자릿 수 득점을 하며 힘을 보탤었다. 1학년 박주현(가드)은 27일 10어시스트·28일 7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지원사격했다.

H조 1위로 결선에 오른 광주고는 30일 16강전을 치른다. **최동환 기자**